

## 아르헨 “외채이자 못 갚겠다”... 또 ‘디폴트’ 위기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마르틴 구스만 경제부 장관은 전날 현지 라디오 데스타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사실상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들어갔다.”면서 “민간 해외 채권단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에 3년 간 채무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여부를 다음 달 8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나온 이유는 20일에 블랙록과 아문디, 피델리티, UBS 등 주요 글로벌 투자사로 이뤄진 해외 주요 채권단 세 곳이 정부의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6일 정부는 세 채권단에 빚진 원리금 총 662억 달러(약 80조8,000억원) 규모의 외채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3년 간 채무상환 유예와 더불어 이자 62%·원금 5.4%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조정안을 제시했는데 20일 채권단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며 난색을 표했다.

해외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재조정안을 거부하면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9번째 국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앞서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 빈곤율이 10%포인트 높아져 45~50%에 달할 것”이라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가난한 게 낫지만 지금은 팬데믹까지 겹쳐서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취임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해외 채권단에 진 나라빚 총 3,110억 달러 중 57%에 해당하는 1,950억 달러 규모 외채를 우선 재협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IMF는 다른 채권단과의 협상을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1827년부터 2014년까지 디폴트를 8번 선언했다. 아르헨티나는 관광과 농산물, 천연자원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상 글로벌 경기 여파에 민감하다. 과거 정권의 환율 통제 정책 탓에 공식 외환시장과 ‘암환전 시장’이 공존하고 있어 외환 시장도 불안하다. 이런 가운데 ‘포퓰리즘→재정난·폐소화 가치 추락→긴축재정→삼중고(高물가·실업률·환율)→포퓰리즘 부활’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채 누적에 따른 디폴트 선언이 되풀이됐다.

## 미, 그린란드에 경제 원조

미국 정부가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에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연합통신’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천연자원과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 그린란드에 1천 210만 달러의 경제 원조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이 북극의 군사 주둔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에 군사적 증강에 나서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해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 구입 의향을 내비치고 덴마크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 없다. 진지한 의미를 둔 것이 아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앞둔 덴마크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하는 등 두 나라는 갈등을 빚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원조를 환영했다. 5만6천 명이 거주하는 그린란드는 17개 도시 간 도로가 제대로 없고 상업용 국제공항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덴마크 정부의 보조에 기대고 있다. 18세기 초반 덴마크 영토로 편입됐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2009년부터 자치권 확대를 달성했지만, 외교와 국방, 통화 정책 등은 여전히 덴마크에 의존한다.

미국의 지원 계획에 대한 덴마크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않다. 덴마크 정부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인민당의 카르스텐 흥에 외교위 위원은 “그들(미국)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며 “가까운 동맹이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이의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성명을 내고 이 기금이 광물산업, 관광업, 교육을 포함해 민간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미국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각국, 코로나 사태로 자전거 각광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도시가 일상적인 활동마저 멈춘 동안 자전거가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감염자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이 늘며 관련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날 독일 베를린 당국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를린의 이번 조치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캐나다 밴쿠버 등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일반 도로에 노란색 스프레이를 뿌려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는 임시방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늘어난 자전거 이용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국

의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재앙급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밀라노는 앞서 21일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확충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봉쇄 해제와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나 도보로 통한 이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각국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전거는 예외적 혜택을 받고 있다. 영국 브라이튼은 아예 해변 일부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해 개방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자전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자전거 판매업체 ‘바이시클 온라인’은 이날 기준 지난 2주간 판매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근 자전거 판매량은 210% 급증했고, 어린이 자전거와 산악자전거도 각각 판매량이 60%와 170%로 늘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www.suhl.com  
info@suhl.com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of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